



協會史整理

大韓韓藥新聞主幹 金 相 培

우리나라 固有의 民族醫藥인 韓藥의 醫學的 機能과 文化的 傳統을 오늘에 계승해 온 正統韓藥人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편적이기는 하나 記錄으로 전해져 오는 原始醫學 이래의 韓藥의 傳統體制 내지는 韓藥專門職能의 제도적 측면을 照明해 볼 필요가 있다

三國時代에 접어들어, 高句麗는 천하의 영약으로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던 「人蔘」을 비롯하여 「백부자」, 「오미자」등 10여종의 약재를 唐에 수출하였으며, 日本에 五經博士를 파견(513年)했던 百濟는 聖王 32년에 內官 12部中에 「藥部」를 설치하고 醫博士와 采藥師制度를 두어(554年) 醫·藥職能을 分業化하였는가 하면, 新羅에서도 百濟의 藥部와 유사한 「藥典」을 설치하고 舍知·史·從舍知 등 官職을 두어 韓藥의 調劑·流通職能을 수행케 했다

또한 高句麗에는 藥員·藥店司·藥藏丞·注藥制度를, 朝鮮朝는 儉藥·採藥色 典藥 劑藥官 등 官制를 두어 韓藥을 통한 藥事職務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괄목할 부분은 歷代 諸 王朝의 醫 藥政策이 王室을 위주로한 高級官史와 일반서민등 신분계층에 따라 치료기관(醫藥人力)의 位階에 差等を 두고 政府가 保健醫療職能을 總管理했다는 사실이다 그 두드러진 예가 高麗朝의 職제로서 王室과 官史들의 치료를 전담했던 太醫監과 尙藥局, 서민보건을 담당했던 惠民局과 藥店을 꼽을 수 있으며 이같은 차별화 의료정책은 朝鮮朝에로 이어졌다. 그러나 絶對王權의 다른 한 面은 鄉藥研究 및 醫藥書 편찬사업에서 찬연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第四代 世宗大王의 愛民思想은 醫藥政策을 통해서도 구현되었는바 鄉藥採集月令(세종 13년-85권) 鄉藥集成方(세종 15년) 醫方類聚(세종 25년-365권)의 편찬이다 이와 함께 온나라 방방곡곡 鄉藥分布現況을 조사하고 鄉藥栽培 진흥을 國策事業으로 추진, 自由醫藥學 발전정책을 펴셨으니 「訓民正音」으로 백성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여시고 「鄉藥」으로 生氣를 充溢하셨다

그러나 극도의 親明路線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11代 中宗(在位 1506~1544)이후 明醫學도 입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自主醫學은 정체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하였으나, 文化思潮의 西勢東漸에 따른 實學思想의 발흥과 함께 術學的 이론을 탈피, 實事求是·實用主義的 經驗醫學을 重視하는 儒醫들의 自主醫學的 연구활동은 세대를 초월하여 계속되었으며, 排佛崇儒의 國是는 儒醫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으니, 14代 宣祖 30年(1547年)에 착수하여 15代 光海君 5年(1613년)에 完成한, 朝 明醫學을 集大成한 許浚의 東醫寶鑑 이어 22代 正祖代(在位 1777~1800)에 이

특한 濟衆新編(康明吉), 廣濟秘旨(李景華), 麻科會通(丁若鏞) 등 불후의 醫藥書 출간을 거쳐, 26代 高宗(在位 1863~1907) 31년에 이르러 民族自主醫學은 李濟馬선생의 四象醫學(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自主國權下에서의 마지막 꽃을 피워낸 것이다

한편, 朝鮮社會에 있어서 韓藥業의 중심지라면, 서울의 구리개(銅峴 지금의 乙支路 入口~3街)와 배우개(梨峴 . 지금의 鍾路四街), 그리고 平壤, 咸興, 原州, 大邱, 全州, 淸州, 公州를 꼽았다 太祖7年 以後 內醫院, 典醫監등 醫藥機關에서 韓藥의 調劑 流通機能을 도맡았던 「注薄」 制度가 있었으니, 官吏와 야반들이 출입했던 「구리개」는 世稱 主薄村으로 불리었고 主薄藥街로 지칭됐던 배우개에는 庶民을 상대로 하는 韓藥房이 밀집돼 있었다.

특히 原州, 大邱, 淸州, 大田, 公州, 全州에는 每年 春秋로 藥令市가 있었고, 이 가운데 大邱令市는 韓藥의 集散地로서 中國과 日本, 印度, 泰國, 越南, 中近東 等地와의 韓藥材 交易의 總本山이었다. 17代 孝宗 9年(1568年)에 처음 開市한 이래 1942年 日帝에 의하여 폐쇄되기까지 (284年間) 大邱藥令市는 神藥의 總本山으로서 韓藥文化를 꽃피웠는가 하면, 1907년 對日國債가 1천 3백 만원(1906년도 國家執行豫算 1천 2백 만원)에 이르자 日帝의 경제침략에 항거, 國채상환 및 國권회복운동의 震源地로서 기능했던 聖地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각 한약의 집산지에서는 名醫가 輩出되어 御醫 혹은 官中醫로 활약하므로써 이 땅에 西洋醫藥이 들어온 1877년 당시만 해도 全國 3萬餘名의 韓藥人들의 活動은 官 民의 지지기반 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10年, 朝鮮併합과 함께 日帝의 植民統治가 본격화 되었으나 이미 이에 앞서 雲揚號 사건(1875)에 이어 강제체결된 日本과의 丙子修好條約(1876)을 계기로 韓末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日帝에 의하여 併합을 전제로 개혁이 진행되어, 1900년도에 洋藥人의 신분을 藥劑士·藥種商으로 규정하였고, 이미 상륙한 西醫·藥의 組織活動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는 바 그 略史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 1908年 9月:朝鮮藥業總合所의 設立(所長 崔漢朝, 副所長 劉漢弼)- 구리개의 한약韓藥人, 金觀燮(三星堂) 金商善 譚傑生 朴宜鄉(宜信堂), 柳基永, 劉致範 劉漢杓(黃金堂) 李景七, 李明哉 李士洪, 李碩模, 李星如, 李盛哉(萬春堂) 李性有, 李濟淳, 張應泰, 趙弼祥, 池聖祚, 崔秉植, 崔聖弼(永昌堂), 崔漢朝, 崔獻圭, 崔興模, 卓洛瑞, 皮汝玉, 洪士宗, 그리고 배우개의 鄭星汝(元濟藥房) 趙寅燮(天一藥房) 崔福卿씨 등이 業權伸張을 目的으로 창립하여 組織形態로 運營하였는바 이것이 곧 오늘의 大韓韓藥協會(서울市韓藥協會)의 母體이며, 우리나라 藥業團體 出現의 효시이다.

□ 資料

- 以後 서울의 韓藥人 400餘名이 設立趣旨에 呼應하여 會員으로 加入하다.
- ▶ 朝鮮賣藥株式會社 設立:朝鮮藥業總合所가 賣藥秩序를 確立하여 庶民들의 需要에 副應할 目的으로 設立하다 (社長 李碩模)
 - ▶ 1910年 8月:大韓帝國滅亡, 韓藥文化도 衰滅의 위기를 맞다
 - ▶ 1912年 6月:韓藥人의 신분, 主簿(從六品)을 韓藥種商으로 格下, 限地職能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그 業務는 韓醫·藥을 전담케 했으며 藥劑士는 洋藥만을 취급케 했다.(藥品及 藥品營業取締令-衛收 第4697號)
 - ▶ 1912年 7月·朝鮮藥業總合所를 漢城藥業總合所로 名稱변경(第2代 所長 李碩模, 副所長 李康斗 外 30餘人이 主動, 조직확대)
 - ▶ 1912年 11月:朝鮮藥業總合所로 名稱變更, 評議員에 朴衡璣, 洪甲杓 外 28人 선임. 業權守護爲主의 事業目的外에 學術啓導·普及活動에 注力하다. 堂 崔南善선생의 父親)가 출연하였는 바 교육계획은 순탄하게 진척되었다
 - ▶ 1914年 6月 醫藥品 取扱 夏期講習會 開催(3個月 短期速成-40명 修了)-간사장 李碩模, 講師 趙炳瑾 洪鍾哲(이상 韓方醫生), 日本人 이토쥬지로(伊藤忠次郎-총독부 의원약제관)·고지마 다카사도(兒島高里) ◇科目:藥事法規, 藥品取扱法, 賣藥調劑法, 實驗實習
 - ▶ 1915年 4月朝鮮藥學講習所(1年速成·夜學制) 所長 趙重應(韓末는상공부大臣·법부大臣 역임), 日總督府의 開校不許를 예상, 李碩模所長은 李完用과 함께 친일파 巨頭인 조중응을 앞세워 開校에성공하다 ◇教科目:漢藥學 약품취급법·약사법규·약품실험·일본 약국방·물리·화학·약용식물, ◇講師 조병근 홍중철 日人요시키(吉木彌三-총독부 醫院약제관) 미야모토(宮本吉次-아노우에의수당약제사)·다케다(武田基助-아라이약방약제사)·요시오카(吉岡靜次-철도병원약제사)·나카지마(中島首三-山岸天佑堂약제사)-2回수료생 30명 배출(약종상허가)
 - ▶ 1918年 朝鮮藥學講習所 폐지, 2년제 朝鮮藥學校로 승격 전환(1회 신입생 100명)-창설자 야마기시(田岸祐太郎), 校長 趙重應, 理事 李東善(朝鮮賣藥) 教科目 물리 화학·생약학·약용식물 위생화학·약제·실험, 1919年 3 1운동후 학생은 40명(日人 30명)으로 격감, 그나마趙重應의 사망으로 2대 교장에 兒島高里 취임후 약학교는 완전히 日人 장악하다.
 - ▶ 1920年 5月·朝鮮藥學校 第1回卒業生(30여명) 배출, 同年11月 제1回 약사자격시험 실시, 응시자 30명중 11명 합격, 이 가운데 10명이 응시한 한국인 합격자는 두사람뿐이었으나 李浩壁(20세)은 수석, 申敏休는 2위로 합격, 우리나라 최초의 약사는 이렇게 한국인의 기

백을 떨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76년, 이들 두 藥師의 後裔에 의하여 그 찬란했던 韓藥權인 유린당할 줄은 진정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까?

이후 朝鮮藥學校는 1927년에 3年制로 승격.

- 1930年 京城藥學專門學校로 昇格한데 이어
 - 1945年 私立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승격 개편되고
 - 1950年 國立서울대학교에 편입- 서울대학교 藥學大學으로 개편, 오늘에는 韓國藥學 教育의 本山이 됐다
- ▶ 1923年:梁翼淳씨가 大邱藥令市 韓藥人들(120여명)을 규합하여 「大邱藥令市振興同盟會」를 결성, 令市の 기능활성화를 추구하다.
- ▶ 1923年 11月:朝鮮藥業總合所를 朝鮮漢藥業組合으로 名稱變更(事務所·中區 長矯洞 72, 會長 李碩模)
- ▶ 1924年 8月 10日·李碩模 會長 外 會員11人이 出資하여 서울시 中區 長矯洞 72-1 所在 대지 27坪, 木造12.15坪의 韓屋을 買入, 會館을 마련하다.
- ▶ 1927年 4月·組合月報창간-主幹 申估求(後에 서울大 藥大生藥學 강사)-貞陵에서 仁濟堂漢藥房 경영
- ▶ 1929年, 韓藥學術團體인 東西醫藥會(회장 金明汝)와 提携, 全國規模의 學術講習活動展開. 講師: 李碩模, 李秉斗, 田光玉, 趙憲泳, 金泳勳
- ▶ 1939年 4月 韓醫師가 주축이 되어 府民館에서 東洋醫學협회(이사장 金明汝)창립 부이사장에 한약업조합 趙寅承씨가 선임되는 등 많은 韓藥人들이 이에 참여.
 - 東洋醫學專門學校설립
 - 醫藥人의 團結.
 - 東洋醫藥報 復刊등 사업계획 채택
- ▶ 1904년 4月 金明汝이사장 신병으로 東洋醫藥協會해산
- ▶ 1941年 6月 三個月 短期 藥品取扱 講習會開催
초빙강사: 總督府 醫官 및 藥制官
과목 藥師法規, 賣藥調劑法, 藥品取扱法, 藥品實驗實習
- ▶ 1941年 12月 8日 · 日帝는 2次大戰과 함께 國策生藥統制會社로 하여금 漢藥去來통제제 전환
 - 총독부에 의해 組合月報폐간(지령 140호)
- ▶ 1942年 · 大邱藥令市 等 日帝에 의하여 폐쇄,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 통제규칙」을

□ 資料

적용.

- ▶ 1947年 1月 15日 : 大邱藥令市 46年度 秋令市(10日間)開市
- ▶ 1949年 1月 1日 . 48年度 秋令市 開市 이후 令市開場中斷.
- ▶ 1949年 · 呂元鉉 會員이 大邱 남성로에 「東洋醫藥專門學院」설립(1·2代 學長 박성수, 재 단이사 呂元鉉)
 - 서울수복후 안암동으로 이사, 東洋醫學大學으로 개칭, 1966年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으로 改編.
- ▶ 1953年 11月 : 朝鮮漢藥組合을 解體하고 大韓漢藥業組合聯合會 創立 - 理事長 朴基承
- ▶ 1953年 12月 18日 : 藥師法制定(법률300號)
 - 漢藥種商業務를 「既成 漢醫書」에 의한 醫藥品 混合販賣職能으로 규정, 日帝가 허용했던 調劑 및 醫療業務禁止 措置
 - 日帝의 限地制度유지,
 - 京城藥專 3回(1933年)졸업생 김경봉 김중건 · 한운수 · 등 藥師가 法案起草
 - 國會保健分科委가 韓醫師制度和 竝立하는 韓藥師 制度의 新設案을 제안했으나 「醫·藥을 분리할 수 없는 韓方의 特性上 韓藥師 制度 不要하다」는 정경모 藥政局長의 反對로 폐기됨
- ▶ 1957年 6月 28日 · 社團法人體 設립을 위한 定款制定
- ▶ 1958年 9月 3日 大韓漢藥組合聯合會를 발전적으로 解體 「社團法人 大韓漢藥協會」創立(保許 第402號)
 - 設立目的 韓藥의 學術과 技術연구 - 招待會長에 朴基承氏 就任 副會長 李英來 · 朴秀祚 卜續根
- ▶ 1958年 6月~10月 · 本協會 發足 以來 산하 지방조직을 強化 - 서울 특별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漢藥協會를 創設(또는 改編)하다
- ▶ 1958년 12月 23日 保藥 第 43號 例規通牒에 의거, 전국 會員의 許可證 一齊更新(1959年 2月 1日~1959年 3月 31日에 걸쳐 各地部經由 施行)
- ▶ 1959年 3月 慶尙南北道 및 濟州道 漢藥協會 創設
- ▶ 1959年 7月 7日 第3回 定期總會에서 各道 「漢藥協會」名稱을 「○○市道 支部」로 改稱할 것을 決議하다
- ▶ 1959年 8月 10日 江原道支部 創立發起總會를 春川에 開催하다
- ▶ 1960年 9月 8日 第2代 會長에 李英來씨 就任.

- ▶ 1960年11月9日 · 中央會事務室을 서울 特別市 中區 長橋洞 72番地에서 鍾路區 鍾路4街 137로 移轉
- ▶ 1960年 12月 10日 本協會 및 漢醫師會 代表者 連帶會意를 開催하고, 「大韓結核協會主 催 結核豫防強調期間行事의 일환으로 市廳앞 廣場 寫眞展示板에 「바지저고리에 당긴 쓴 老 人 이 診察하는 光景의 漫畫위에 「비과학적 療法 미신 배제」 題下에 「漢藥으로는 낫지 않는 다」는 標語를 展示한 「漢醫藥冒瀆事件」에 對한 共同 對應策 協議
- ▶ 1960年 12月 19日 : 서울 進明女高()3 · 1堂(에서 韓醫協과 共同으로 對政府 結核協會 성토대회, 관련자 처벌 및 공개사과 요구 - 大韓結核協會側이 口頭로 謝過
- ▶ 1961年 1月 9日 · 本協會 李英來會長과 漢醫師會 朴性洙會長이 尹普善 大統領을 禮訪하고 漢醫藥界의 實情을 報告하다
- ▶ 1961年 6月 27日 法律 第621號에 의거 本協會 各 會員들이 「藥令市復興對策委員會」조 직
 - 漢醫種商 國試실시~藥令市에 40여명의 회원 充員.
- ▶ 1962年 6月 1日 中央會事務局을 韓國漢藥輸出入組合 構內로 移轉하다
- ▶ 1962年 10月 26日 : 第3代 會長에 崔健熙씨 就任
- ▶ 1964年 5月 29日 中央會 事務局을 鍾路5街 202番地로 移轉
- ▶ 1964年 6月 13日 · 本協會 崔承榮 副會長 靑瓦臺를 禮訪하여 韓藥界 全般에 걸친 狀況을 報告하다.
- ▶ 1964年 10月 23日 第4代 會長에 李英來씨 就任
- ▶ 1965年 10月 27日 · 第5代 會長에 崔健熙씨 就任 後 第6代~第9代에 걸쳐 連任.
- ▶ 1967年 8月 25日 長橋洞 韓屋會館 所有權을 會團法人 大韓漢藥協會 서울시 支部로 名義 로 登記
- ▶ 1969年 7月 30日 同 韓屋會館을 減失, 現代式 四層建物(連建坪 54.7坪)준공 - 朴基承 崔健熙씨 外 會員 20人 및 3個社等 基金 出捐
- ▶ 1969年 6月 7日 保健社會部 例規 第233號공포
 - 시행 - 公證서 제정시까지 잠정적으로 韓藥業士에게 적용할 (제2조)업무 근거를 「11個 既成韓藥書로 규정하다 - 총273권
- ▶ 1971年 1月 13日 · 藥事法改正, (第26條) 漢藥種商을 「漢藥業士」로 變更(법률 제227호)
- ▶ 1971年 5月 18日 · 종로4가 137로 中央會 移轉
- ▶ 1973年 7月 4日 · 長橋洞 72로 中央會 移轉

□ 資料

- ▶ 1973年 11月 8日 · 第17回 정기총회, 10個市
 - 道支部에 會旗製作 수여하다.
- ▶ 1975年 1月 31日 : 第10代 會長에 梁源泳씨 취임.
- ▶ 1975年 2月 26日 · 大韓漢藥學會 창립 - 理事長 尹庚一(光州) 理事 李基雨(부산)
權中顏(서울) 鄭憲成(대전) 文永燮(전남) 楊福圭(전북) 朴泰植(경북)
- ▶ 1975年 3月 7日 : 4個 分科委員會 창설
 - ① 한약재감별위원회(위원장 梁源永)
 - ②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鄭泰雄)
 - ③ 권익옹호위원회(위원장 閔泳富)
 - ④ 윤리위원회(위원장 金斗根)
- ▶ 1975年 6月 藥師의 韓藥調劑 금지 및 韓·洋方醫藥分立을 골자로 하는 「藥事法改正案」을 金三峯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하다 - 韓醫師協會도 類似內容의 개정안을 제출
- ▶ 1975年 6月 21日 · 大統領 및 國會議長에게 全會員 連名으로 韓藥業士制度개선 탄원서 제출
 - 韓藥業士의 韓藥混合販賣 禁止를 규정한 藥邪會의 藥事法 개정안 반대
 - 韓藥師로의 전환.
 - 免許證부여
- ▶ 1975年 12月 17日 · 第94回 정기국회 藥事法改正案에 대한 附帶決議 통과 · 「藥師의 韓藥任意調劑 및 診療行爲를 엄중히 감독하고 藥師會의 자율규제를 통하여 약사윤리를 확립하라」
- ▶ 1975年 8月 20日 : 大統領令 第7746號 공포 - 보건사회부에 漢醫·藥 전담부서(醫政3課)를 설치하였으나 韓·洋方 일원화를 指向하는 藥師會의 반대로 醫政3課 폐지되다.
- ▶ 1975年 9月 1日 : 月刊「漢藥會報」등록 (公報 마 - 390호)
- ▶ 1975年 10月 10日 : 漢藥會報 創刊 - 大韓漢藥學會발행.
- ▶ 1976年 6月 9日 : 11個 既成 韓醫書를 藥師의 業務領域으로 포함. - 國會의 부대결의에도 불구하고 藥師의 韓藥調劑를 합법화 시키다 (보사약 제1447 - 9330號 - 유권해석)
- ▶ 1976年 9月 7日 · 梁源泳 회장, 신현호 보건사회부 장관을 상대로 訴願狀제출 - 既成韓醫書를 藥師業務 영역에 포함시킨 유권해석(보사약 제1447 - 9330호)의 철회를 요청하다. - 협회 대리인 손동수변호사
- ▶ 1976年 10月 1日 : 보사부장관 한약협회의 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

- ▶ 1976年 10月 28日 :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소원취하 방침을 견지해온 것이 발단이 되어 梁源泳회장 및 이용운 사무장의 사표를 수리한 10 18일자 이사회 결의를 추임하다
- ▶ 1976年 10月 28日 : 第11代 會長에 鄭泰雄씨 委任 以後 1回 連任中 1978年 3月 22日 辭任.
- ▶ 1976年 11月 10日 : 鄭泰雄회장 金俊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신현호보사부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藥師의 의약품 조제권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의 취소청구 위 訴)를 제기하다.
- ▶ 1976年 12月 17日 : 第96回 定期總會 - 對政府建議案 통과
 - ① 제94회 정기총회가 채택한 藥師의 韓藥調劑금지등 부대결의준수를 위한 감독을 강화 하고
 - ② 東西醫藥의 균형발전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 ③ 한약조제사항을 大韓藥典에 새로 추가하지 말 것. (12월 31日 공포 - 法律 第2861號)- 朴永錄議員外 55人의 발의
- ▶ 1977年 5月 10日 : 漢藥會報를 「漢藥協報」로 변경
- ▶ 1977年 7月 : 韓藥大學설립 · 韓藥師 배출을 내용으로 한 「東洋藥事法」制定案을 崔致煥 議員이 제안 · 발의했으나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반대로 폐기된다.
- ▶ 1977年 8月 : 大田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위하」결의하다.
- ▶ 1977年 8月 20日 :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상정한 「행정소송 취하 결의안」을 심의, 행소취하를 결의하다. (대의원 133명중 찬성 75표, 반대 52표로 가결)
- ▶ 1978年 3月 22日 ~ 1979年 3月 31日 · 金在德씨. 鄭泰雄(12代)會長의 殘餘任期 會長職務代行.
- ▶ 1978年 : 大邱藥令市會員들이 중심이 되어 「藥令市復活推進委員會」결성 - 위원장 方泰榮씨
 - 令市부활, 10月 秋令市 開設이후 96年 10月 現在까지 계속됨.
- ▶ 1979年 4月 1日 : 第13代 會長에 金在德씨 취임 · 14代 會長 連任.
- ▶ 1979年 7月 2日 : 定款 變更 各 市道支部 및 市郡區 分會로 변경.
- ▶ 1980年 1月 28日 : 전라남도 知事 韓藥業士試驗 公告
- ▶ 1980年 2月 7日 : 閔寬植藥師會長, 全北道 및 各 道知事에게 「韓藥業士 試驗 中止」建議 - 全北道知事, 韓藥業士試驗계획 무기연기 조치하다.
- ▶ 1980年 3月 22日 : 藥事法施行規則改正.

□ 資料

- 藥局는 재래식 한약장이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할 것(구·제7조1항 제7호 신설)
- 약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처방전이나, 대한약전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구 제7조의 2)- 部令 제642호.
- ▶ 1980年 3月 17日 :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비상총회소집, 業權守護결기대회 개최하다. - 韓藥業士試驗중단 및 藥師의 韓藥調劑를 허용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政府와 藥師會를 성토 - 2천2백50명 참가.
- ▶ 1980年 4月 7日 : 한약대학 설립 및 한약사제도 시설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 請願 百萬人 署名運動」, 시도지부를 통하여 착수하다.
- ▶ 1980年 4月 10日 : 제23회 定期總會를 겸한 업권수호결기대회를 대구시민회관에서 개최하다. - 7백30명 참가.
- ▶ 1980年 4月 20日 : 부산직할시·경남도지부 합동으로 부산예식장에서 업권수호결기대회 개최하다. - 4백60명 참가.
- ▶ 1980年 4月 20日 : 대구직할시·경북도지부 합동으로 대거동원예식장에서 업권수호결기대회 개최하다. 5백25명 참가.
- ▶ 1981年 6月 17日 : 鍾路區 母岳洞 9-8로 중앙회 사무소 移轉
- ▶ 1982年 1月 29日 백만인 서명록 첨부, 藥事法改正請願書 제출하다 - 보건사회부장관 및 국회보건사회위원회.
- ▶ 1982年 8月 21日 : 종로구 모악동 11-9로 중앙회 사무소 이전.
- ▶ 1982年 9月 : 「漢藥業士倫理綱領」기초완료(金相培 編輯責任者 起草)
- ▶ 1982年 12月 20日 : 韓藥師제도 신설, 韓·洋方醫藥분리발전내용의 藥事法改正案 議員立法발의 - 白磷基의원外 20人(85. 4 자동폐기)
- ▶ 1983年 3月 29日 「漢藥業士倫理綱領」확정, 선포 - 제 26회 정기총회.
- ▶ 1981年 11月 4日 : 전국 한약업사 시험시행에 대비, 회원중에서 출제위원 20人을 선발, 국립보건원에 추천하다.
- ▶ 1983年 11月 27日 : 전국 9개道(590개지역)에서 韓藥業士國家考試 일제실시하다~ 韓藥業士518명 탄생.
- ▶ 1985年 4月 1日 . 제15대 회장에 李洙健씨 취임, 16대 회장 연임.
- ▶ 1985年 7月 25日 : 마포구 유덕동 79-15 서울시지부 회관으로 중앙회 이전
- ▶ 1986年 6月 10日 : 法律 제3825호(1986. 5. 10)에 의거, 韓方醫藥關聯 “漢”字가 “韓”字로 변경됨에 따라 본협회명칭을 社團法人 大韓韓藥協會로 변경 기타 諸 관련 명칭 용어도

이에 準함

- ▶ 1987年 6月 20日 : 藥事法施行規則 改正(부령 제803호)
 - 休業 期間 2月以內를 1年以內로 연장.
 - 移轉制限완화 - ① 韓藥業士가 없는 管內地域이전 ② 보사부장관 승인 傳統韓藥市場 및 천재지변, 공공사업에 따른 이전사유 발생시 타관할지역으로의 이전 허용.
- ▶ 1987年 6月 20日 ·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공포 「韓藥業士 資格認定書」제도로 전환, 허가말소자 및 폐업자까지 구제의 단초가 마련됨.
- ▶ 1989年 7月 26日 : 金兌鎭 전라북도지사장, 회원자격으로 藥師韓藥調劑의 부당성을 지적,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약사관리제도 불법운용과 韓藥業士業權侵害에 관한 憲法訴願」 청구하다.
 - 89. 8 21 - 헌법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결정.
 - 90. 5. 1 - 韓藥協會, 憲訴에 공동참가.
 - 90 11. 19 - 大韓韓醫師協會, 憲訴에 補助參加.
 - 1991. 9 16 - 「却下」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총17회의 청구서 보완서 및 반론서를 제출하다 - 변호사 : 장영순 · 김구일 · 차형근 이상혁
- ▶ 1990年 8月 29日 · 보건사회부로부터 藥事監視自律指導運營規程 承認(보사부훈령 제529호)
- ▶ 1991年 4月 28日 · 제17대 회장에 姜容鉉씨 취임.
- ▶ 1992年 7月 13日 定款改正 - 지부는 시 · 도 韓藥協會로, 분회는 區 · 市 · 郡 한약협회로 통일(定款 제38조)
- ▶ 1992年 8月 1日 중앙회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지부는 사무국장제로 직제개편(定款 제54조)
- ▶ 1993年 3月 5日 · 藥事法施行規則改正(部令 제902호)
 - 약국내에 재래식한약장 설치금지조항(제11조1항7호)삭제 - 韓 · 藥紛爭격화 -
 - 韓藥業士 자격인정서를 「자격증명서」로 변경(제41조)
 - 營業所를 「韓藥房」으로 변경하고 타관할지역으로의 이전허용(제43조)
- × 질병을 규명하는 행위가 아닌, 환자의 상대방관찰행위를 허용하도록 立法豫告(93. 1. 30 공고제93-12호)하였으나 韓醫師協會의 반대로 삭제되다 (제48조6항)
- ▶ 1993年 9月 8日 : 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凡韓醫藥學살리기 궐기대회」 개최하다. 本協會會員 1,124명, 범한의계 1만여명 참가 - 여의도 광장.

□ 資料

- ▶ 1993年 9月 16日 : 政府, 한약분쟁조정위 설치(韓醫師·藥師會 經實聯·消費者聯盟·消費者問題研究시민의 모임), 居中調停끝에 20日 韓醫·藥師會 經實聯案을 수락하다.
 - 한약사 제도 신설
 - 3年 이후에 한방의약 분업실시
 - 한약취급약사의 기득권 인정
- ▶ 1993年 9月 25日 : 제165회 정기국회에 文昌模의원 外 85人 명의로 ① 의료보험법 개정안(의안 제84호) ② 약사법개정안(의안 제85호)등 2개 법률안 發議하다.
 - 한약의보 시행시에 한약방을 참여시킬 것을 전제로 의료보험 개정안 폐기
 - 자격증 부여
 - 자유이전
 - 환자상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약사법 개정안은 계류후 폐기되다.
- ▶ 1993年 10月 16日 : 青年韓藥業士들이 주동, 祭基洞 삼화회관에서 「韓藥師推進委員會」結成하다 - 위원장 이종대, 부위원장 송종석·서성구·이양수·서영학·박상호
 - 10월 31일 대전 관관호텔에서 1차회의 개최, 「青年韓藥業士會」로 명칭 변경.
- ▶ 1993年 11月 7日 · 한약사추진전국대회 개최(팔레스 호텔) - 450명 참가, 서금 6,450만원 모금.
- ▶ 1993年 11月 10日 : 「韓藥業士를 韓藥師로 轉換」 請願書제출 - 文昌模의원 소개 - 계류후 폐기되다
- ▶ 1993年 11月 23日 · 韓藥師推進全國大會 63빌딩에서 개최 - 1,200명 참가, 성금 1억 1천만원 모금
- ▶ 1994年 1月 7日 : 藥事法改正(法律 제4731호)- 韓藥師制度 新設
- ▶ 1994年 4月 1日 : 제18대 회장에 尹濟殷씨 취임.
- ▶ 1994年 7月 18日 藥事法施行規則 改正(부령 제933호)
 - 도매업무 관리자 범위에 韓藥業士 포함(제56조4항)
 - 혼합판매규정(법제36조2항)위반시, 업무정지 3月(1차), 6月(2차) 및 허가취소(3차)를 규정한 立法豫告案 삭제
- ▶ 1994年 11月 8日 : 制度委員會 創設 - 初代 委員長 崔龍頭씨.
- ▶ 1994年 11月 9日 : 홍보위원회 창설 - 招待 위원장 禹柄奎씨
- ▶ 1994年 11月 10日 : 학술위원회 창설 - 招待 委員長 辛龍哲씨
- ▶ 1994年 12月 8日 · 「國民苦衷處理委員會」에 韓藥業士制度 改善請願書제출

- 96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부터 보건복지부로 넘겨 해당부의 의견제출을 요망함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제도를 부차원에서 개정 할 수 없다고 통보함.
- ▶ 1996年 3月 31日 · 尹濟殷회장 辭任.
- ▶ 1996年 4月 1日 · 姜容鉉씨, 尹濟殷회장의 殘餘任期(1年) 會長 就任하다.
- ▶ 1996年 4月 30日 : 제39회 정기총회, 編輯局設置 및 韓藥協報 版形擴大(타블로이드 倍版)키로 결의.
 - 1996年 7月 1日, 編輯局 設置
 - 6月 2回次 發行(지령 제274호)을 끝으로 休刊
- ▶ 1996年 8月 17日 : 學術委員長 尹庚一씨 피선.
- ▶ 1996年 10月 17日 : 「大韓韓藥新聞」으로 紙名변경, 정기간행물 등록 - 타블로이드倍版, 6·12면 인가 - (서울 라 1034호)
- ▶ 1996年 12月 30日 약사법 施行規則 改定令 立法豫告(공고 제96-105호)
 - 한약업사자격증명서를 「韓藥業士 資格證」으로 격상, 개정함(제50조)
 - 한약재 규격품 제조관리자에 韓藥業士를 포함시킴(제38조 제1항)
- ▶ 1997年 2月 22日 : 정부로부터 韓藥業士 經驗方 採錄의 연구용역을 받아 學術委員會에서 회원경험방 채록사업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그 사업기구를 구성
- ▶ 1997年 4月 25日 : 協會誌 「大韓韓藥」創刊號 發刊

먼 靑山을 깔고

전에는 뒷산에도
자주 올라 갔지만
이제는 다리가 아파
그러지를 못하고
靑靑한 背景만 깔고
그저 바라볼 뿐이네.
- 朴在森 -